

“교통약자 장거리 이동권 보장을”

김승수 전주시장, 전북 시장군수협의회서 시외·고속 저상버스 도입 등 인프라 마련 촉구

전주시를 비롯한 전북지역 14개 시·군이 지체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장거리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13일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에서 열린 '민선6기 3차년도 제3차 전북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전국 시외·고속버스에는 장애인 휠체어가 탑재해 이동할 수 있는 버스가 전무한 실정”이라면서, 정부에 시외·고속 저상버스 도입 등 인프라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김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의 증진법” 제3조에는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

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돼있다”면서 “지자체별 시내권에서 보장되고 있는 장애인 등의 이동권이 시외지역으로의 이동에도 마땅히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시와 군산시, 익산시 등 각 지자체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의 증진법’에 따라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탑승하기 편리한 저상버스를 운행하고 있지만, 시외·고속버스에는 저상버스가 도입되지 않아 장애인 등이 시외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 시장은 “현행법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명문화하고 정부도 이동권 확

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는 근거 이동에 대해서만 고려되고 있을 뿐이다. 장거리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실행력 있는 예산지원 등 정부차원의 인프라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다”면서 “전북시장군수협의회에서부터 제반 문제점을 공동으로 인식해 정부에 한 목소리로 시외·고속버스에도 교통약자를 위한 제반 법률 개정과 인프라 구축을 건의해 나가자”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또 지난 2008년 최초로 도입돼 차량충당기간인 9년이 도래한 저상버스를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데·폐차시 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만큼 대·폐차시 지원금 및 분담비율을 조정토록 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함께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북시장군수협의회 14개 단체장들은 전주시의 건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대중교통은 시민들의 발이자 생존권과도 직결돼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도 어떠한 차별과 불평등 없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시내버스에 이어 시외·고속버스에도 저상버스가 도입돼야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사회 참여가 온전히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주시는 현재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내저상버스 외에도 총 42대의 이지콜과 3대의 셔틀버스 등의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다. 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예약일정 15일에서 7일로 단축 △예약접수 1일 2회로 확대 △연장근무 및 수요시간대 집중 배차 △관제시스템을 통한 공차시간 감소 등을 추진하는 등 서비스 혁신에 나서고 있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친환경 미생물로 안전한 먹거리 생산

농업미생물 배양실 개소 소비자 건강증진 기대

전주시가 영농활동에 필요한 착한 미생물을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에 무상 공급해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돕기로 했다.

전주시농업기술센터는 13일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 각 농업인단체, 품목별연구회원 등 관내 농업인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미생물 배양실 개소식을 개최했다.

농업미생물 배양실이 문을 열면서 농약 및 화학비료의 지속적 사용으로 인한 토양 산성화와 작물생육 부진 등의 문제점을 해결해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신선하고 안전한 전주푸드 등 건강한 먹거리 생산으로 소비자의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농업기술센터는 국비 5억원 등 총 20억원을 투입해 별관 165㎡를 리모델링해 미생물 자체배양 장비 및 시설을 갖춘 농업미생물 배양실을 설치했다.

배양실은 주당 2톤의 미생물을 생산할 수 있는 미생물 배양기와 저온저장고, 저장탱크, 자동분주기, 고압세척기 등 미생물 배양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시험배양을 거쳐 본격적인 생산 체제에 돌입했다.

이곳에서 생산된 유용미생물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유용미생물



전주시농업기술센터는 13일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 각 농업인단체, 품목별연구회원 등 관내 농업인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미생물 배양실 개소식을 가졌다. 참석자들이 조한춘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안내로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활용기술 보급 교육을 이수한 농가에 1주당 40리터까지 무상으로 공급된다. 농업인들에게 자체 배양한 미생물이 공급되면 배양액 1톤당 약 50만원 상당의 농업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농업인의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용미생물은 토양처리와 작물 염면 살포, 생활 속 악취제거, 청소용 등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전주시에서 직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주푸드

등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내년에는 단일급 생산 등 미생물 생산시설을 확충해 생산 품목을 늘리고, 연간 최대 200톤까지 생산·공급할 것”이라며 “전주시 농업인들이 생산비 절감에 의한 실질소득 향상은 물론 안전 농산물 생산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입지를 다져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웃가게 여직원 폭행한 50대 집행유예 2년 유지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13일 서비스가 나쁘다는 이유로 웃가게 여직원을 폭행한 전모씨(50, 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내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하고 40시간의 폭력치료 수강과 보호관찰을 명했다.

전씨는 지난 4월 6일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아울렛의 한 등산복 매장에서 여직원 A씨(40,여)에게 폭언을 가한 후 목을 잡고 뺨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조사결과 일주일간 구입했던 등산복의 소매를 줄여달라는 요구에 여직원 A씨가 기분나쁜 말투로 거절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당시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인정하지만 법정에서 피해자의 서비스가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반복해 진술하는 등 피해자에게 범행원인을 떠넘기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과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 폭행하려 했던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항소 기각이유를 판시했다.

/김민근 기자

전주매일 www.jjmaeil.com

전주시, 자원봉사 역량강화 교육

전주시가 전사도시 전주를 만든 자원봉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나섰다.

전주시는 13일 전주자원봉사센터 이웃사랑관에서 자원봉사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2016 자원봉사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전주 자원봉사의 맥(脈)과 통일한국 준비를 위한 자원봉사자의 자세', 전주정신 '한국의 꽃심 전주' 등 3개 강의로 진행됐다.

먼저, 전주 자원봉사의 역사에 대해 강연에 나선 최원규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전통 사회의 삼천기잡놀이와 자원봉사를 실천했던 '두레'의 흔적이며, 주위의 가난한 이들을 위해 공간을 열어 배분을 실천했던 선행의 미덕이 이어져 '노동의 열굴' 없는 '천사'에 그 맥이 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또 “대학생들의 농촌 봉사활동과 야학, 1997년 IMF 경제위기에 실직자정과 빈곤가정의

아동들을 위한 대학생들의 멘토링 자원봉사의 훈훈한 이야기와 전주 시자원봉사연합회 출범,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자원봉사활동의 결실로 전주시자원봉사종합센터라는 훌륭한 봉사인프라 구축, 2002월드컵을 유치한 전주 시민들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전 세계에 활짝 핀 전주 자원봉사의 아름다움 모습을 보여줬다”면서 “국제행사나 지역축제행사에 시민자원봉사는 필수요소가 됐고, 자원봉사는 미래 전주에서 행정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어두운 구석에 밝은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주정신 강의를 진행한 김귀경 강사는 “꽃심은 싹을 띄워 내는 힘, 한겨울 꽁꽁 얼어붙은 땅을 뚫고 봄이면 온전하게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의 힘으로, 꽃심이 전주의 대표 정신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서 “꽃심에는 대동과 풍류, 율곡과 창신의 네 가지 정신이 함축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재 기자

덕진경찰서, 범죄예방 우수 주차장 시설 인증패 수여

전주덕진경찰서(서장 박성구)는 13일 범죄예방 환경이 우수한 주차장을 대상으로 시설 인증패 현판식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알렸다.

이달 초부터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주차장을 16개소를 집중 점검한 덕진경찰서는 이중 패쇄회로(CC)TV, 보안, 과속방지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범죄환경 개선효과를 보이고 있는 혁신도시 우미린 2차아파트 등 8개소를 선정했다.

우수주차장 인증제도는 대형마트 등 민간의 자발적인 시설 개선을 유도해 다중이용 주차장 이미지 홍보와 여성

들의 불안완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범 안전시설물 등 90여개 항목에서 일정 기준 이상 충족하는 경우 심의회를 거쳐 경찰서장명의로 인증패를 수여하는 제도이다.

박성구 덕진서장은 “살기 좋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아파트, 주민들이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는 대형마트, 교통사고가 없는 주차장 등 세부적인 방법 사항 등을 관계기관과 협업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한 전주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민근 기자

평화동 A어린이집서 3살 여아 학대사건 발생

전북 전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3살 여아를 억지로 먹고 때리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12일 저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소재의 한 어린이집에서 딸이 어린이집 교사에게 학대를 당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경찰이 확보한 폐쇄회로 CCTV 영상에는 교사가 세 살배기 원생 김모양에

게 억지로 밥을 삼키게하고, 제대로 삼키지 못하자 김양의 얼굴을 밀고 엉덩이를 세 차례 때리는 학대행위가 적나라하게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불거지자 교사는 어린이집을 그만 둔 상태이다. 경찰은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는 한편 추가적인 학대정황이 없는지 수사를 하고 있다.

/김민근 기자